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주영신** · 이민창***

초 록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재범 청소년 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857개의 진술문에서 1,421개의 개념과 59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확인되었고, '노력형', '의존형', '방관형', '포기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접근이 어려운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 분야의 접근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근거이론, 비행청소년, 일상생활, 재범, 질적 연구

* 이 연구는 주영신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강사, 제1저자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청소년 유해환경의 확산과 부모의 이혼·실직 등에 따른 가정 해체, 공교육 현장의 붕괴, 경제 지상주의 속에서 발생하는 이기심과 황금만능주의 등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범죄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범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33%에 이르고 있어 사회문제의 현실적인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노컷뉴스, 2007. 03. 08일자). 법무부뉴스¹⁾ 자료에 따르면, 저연령층 범죄 및 재범비율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기반 체제를 구축하려는 동향이 표출되었다. 이는 시설보호차원보다 사회 내 처우차원인 보호관찰 판결이 한층 더 많아지게 되는 시점에서 청소년 재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해준다. 특히 청소년시기의 비행 경험은 성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에 청소년의 재비행 혹은 재범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 재범 및 재비행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및 환경의 특성과 재비행과의 관계 및 재범 예측과 재비행 요인에 관한 연구(김현수·김현실, 2001; 최인섭·진수명, 2002; 김성곤, 2003; 이동원, 2003, 2004; 이성철, 2004; 정연미, 2005; 민원홍, 2006; 오창규, 2007),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김주희, 2006), 일반청소년 집단과의 비교연구(김민동, 2002) 등이 있었다. 이러한 범죄 관련 대부분의 문헌들은 비행하는 청소년집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집단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가정·학교·사회 등의 배경요인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은 설문지 혹은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비교집단의 특성과 각 환경요인에 따라 검증된 결과분석을 토대로 위급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의 개입과 보호, 교육기관의 성장을 강조하였다.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기까지 유형화된 요인을 연구하거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재범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범자가 어떻게 하여 재범에 이르게 되었고, 초범과 재범사이에 어떤 영향 요인이 작용하여 재범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1) 법무부뉴스 2007년도 4월 24일자, 6월 15일자, 7월 25일자의 내용 종합한 내용이다.

불구하고, 이 결과들을 재범자에 대한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양적분석방법에 치중되어 있다. 최근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최옥채·이정미, 2006), 극소수에 불과하고 기존 이론에 의존하여 단편적인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반복되는 범죄에 따른 현상을 규명하고,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현수(現數)나 명제를 설정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II. 문헌고찰

1. 범죄 및 비행이론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의 다양화·흉포화·저연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사회적·정서적·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비행이론을 사회학적 이해, 생물학적 이해, 심리학적 이해로 분류하여 고찰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이론적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학적 이해

사회학적으로 바라 본 범죄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동기도 사회적 근원을 가진다고 본다. 사회학적인 범죄이론에는 긴장이론(strain theories), 비행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낙인이론(labeling theory)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긴장이론’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가 합법적인 통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없을 때에 긴장이 발생하며, 소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것이다(Robert K. Merton, 1957). ‘낙인이론’은 범죄와 비행의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써 Becker는 비행이란 어떤 행위 자

체가 근본적으로 정상행위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비행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에 의해 낙인찍힌 행위라는 것이다(김경신 외, 2007, 재인용).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사회의 어떤 소집단들이 사회 전반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며, 이들 소집단 중 일부는 범죄적이고 비행적인 행위를 묵과하거나 조장시키기까지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트래서(Federic M. Thrasher) 및 쇼(Clifford R. Shaw)와 맥케이(Henry D. McKay)는 양과 질을 혼합한 연구에 범죄행위의 성격과 분포를 적용하여 시카고의 경찰과 법원관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Hans, 1986).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원인을 완전한 설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학적인 범죄이론이 개인적인 범죄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인 이해를 돕는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학적 범죄이론을 범죄자의 상세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범죄경험을 접목시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생물학적 이해

생물학적인 범죄 이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롬브로조(Lombroso)의 이론이 과학적 범죄분석이론의 시초이지만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생물학적인 범죄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Lombroso와 함께 Raffaele Garofalo도 특정한 생물학적 특성이 범죄행위의 원인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최영인·염건령, 2005). 생물학적인 범죄 이론은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을 중점으로 하고 있었다. 셸돈(William Sheldon)은 신체형(Somatotype)의 조건으로 범죄성향 분류 연구를 수행하여 학계의 각광을 받았다. 즉 신체조건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신체조건이론은 셸돈과 코츠(Juan Cortès)에 의해 대표되는 초기의 생물학적 이론으로서 롬브로소와 가로팔로의 범죄관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옥채, 2003). 생물학적인 범죄이론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형만으로 범죄자로 매도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이어트나 성형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신체적인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최영인·염건령, 2005).

3) 심리학적 이해

심리학적인 범죄이론은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인지·정서·정신병리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 이론들이 활용되었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언급되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 네 가지의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Hans, 1986). 첫째, 범죄행위는 신경증의 한 형태이다. 둘째, 범죄자는 죄 의식과의 무의식적인 투쟁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셋째, 범죄행위는 가정 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체물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범죄행위는 배제된 적개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이상현, 2005).

‘인지이론’의 경우, Wilhelm Wundt, Edward Tichener, William James 등이 대표적인 학자로 인간의 정신적 발달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경험과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정신이 발달·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범죄행위로 발전된다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최영인·염건령, 2005).

‘성격이론’은 Sheldon Glueck과 Eleanor Glueck(1950)에 의하여 반사회적이고 범죄성을 내포하고 있는 독단적·반항적·외향적·이중 경향적·자기중심적 성격 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Hans Eysenck(1977)는 범죄와 관련하여 대별된 개성으로서 외향성과 내향성,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제시하였다. 성격적인 측면에서 본 범죄인들의 특징으로는 첫째, 범죄인이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범하는 경향이 강하고, 둘째, 어린 시절에 범죄성격이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최옥채, 2003, 재인용).

‘사회심리이론’에는 사회학습이론과 사회정보처리 모형이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조건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찰과 모방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리학적 과정을 거쳐서 배우게 된다고 한다(Hans, 1986). 사회정보처리 모형은 범죄인들이 사회적인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양상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충고를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최옥채, 2003).

2. 청소년의 재범과 현황

‘청소년(靑少年)’이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연령층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범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비행(非行)²⁾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비행소년³⁾, 비행청소년, 청소년 비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재범(再犯)’이란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의미하나,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교도소, 소년원 등의 기관별로 재범에 대한 기준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백서(2006)를 통하여 살펴 본 청소년 범죄는 2001년 이래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회 이상 보호관찰을 경우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5회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이 1%대에서 0.1%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3. 선행연구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탈행위를 하는 청소년 집단으로부터 시작되어 일반적으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비교연구를 하면서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밝혀내거나, 요인들을 배경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정책적·임상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비행의 감소 및 예방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숙·고성혜(2003)의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중퇴하였거나, 문제행동을 시작하면서 중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가 음주와 흡연·무단결석·이성과의 성관계 경험빈도가 높았다.

2) ‘비행(delinquency)’은 범죄에 비해 그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적고, 형사사건과 구분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또한 비행은 청소년에 국한하여 이들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최옥채, 2003).

3) 비행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부모의 자녀학대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진희·전숙영(2003)의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최인섭·진수명(2002)은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의 기록과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이용하여 보호관찰이 종료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나이·성별·중퇴경험·이전 전과·약물사범·처분내용의 6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재범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준호·이순래(1995)는 모집단 이질론과 상황의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소년범죄자가 왜 성인범죄자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관계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와 성인범죄는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그 밖에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을 중점으로 자아존중감·자기통제력·충동성·공격성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와 성인범으로 전이되는 중요한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범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비행과 가족·사회환경·또래집단 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었다. 한편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학습능력이 부진할 때, 교사와 또래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 경험과 유관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험들이 재비행 혹은 재범을 하게 되어 만성적인 성인범죄자로 변화한다는 것이다⁴⁾.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범죄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즉, 청소년기 범죄경험은 재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초기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가정적·사회적으로 나누어 고찰됨으로써 예방적, 정책적인 제언으로 발전되었다.

4)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행석(2005), 유제필(2005), 이성철(2004) 등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선택 및 이해

1) 연구방법의 선택

본 연구는 연구주제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집단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연구문제가 기존 이론과 연구의 부족함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고 편협할 수 있을 때, 특정한 현상을 탐구하거나 이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의 본질이 정량적 연구방법과 맞지 않을 때 시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접근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철학적 뿌리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근거이론’이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도록 고안되었다. 다시 말하면, 근거이론은 원자료로부터 도출된 이론이고, 원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직관력과 이해, 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이론이란 용어는 논리적으로 추론된 이론과는 달리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과 이론개발을 명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과정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을 귀납적으로 이끌어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식으로, 현상에 속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면서 발전되고 잠정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서 자료수집, 분석, 이론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수지·신경림, 1996). 연구자는 근거이론 연구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 경

로를 따라 최종적인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체계적 코딩과정⁵⁾ 및 메모 등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이론을 개발한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첫째, 연구문제를 구체화하여 연구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둘째, 연구자로서의 준비성을 파악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이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을 점검하고 자료수집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넷째, Nvivo 7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기록조사자료, 현장일지, 메모 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민감성과 지속적인 비교 및 메모 등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다. 여섯째, 코딩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였다.

3. 연구자의 윤리 및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심층면접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녹음에 대한 허락과 비밀보장에 대한 확신 등을 위하여 '연구참여동의서'를 활용하였다. 연구진행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변화 혹은 상황에 변화로 인하여 면접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서울, 광주, 대전, 전남·북, 경상 지역에 소재해 있는 8개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 이후 5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하였다.

5) 체계적인 코딩과정에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개방코딩(open coding)'은 개념을 밝히고,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써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가를 보여 준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밝히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2001).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연구참여자와 합의 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인터뷰자료, 조사자료 및 면접기록 열람, 현장일지, 메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전사작업(transcript)과 분석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자료분석은 Nvivo 7프로그램⁶⁾을 활용하여 근거이론연구방법의 분석단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과정 및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경우 다른 연구와는 달리 접근통제자(gatekeeper)⁷⁾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접근통제자의 협조를 승인받아 연구자가 각 지역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은 각 기관의 상담실 혹은 교육실 등의 장소를 제공받아 개방형질문을 가지고 1:1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지속적인 비교·통합·수정·재해석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인 전사작업은 2007년 2월 24일에 마무리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 총 29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남자 25명(86%) 여자 4명(14%)으로 연령은 만 14세~만 20세까지로 평균나이는 17.34세였다.

6) 질적 연구자료 분석 Software인 Nvivo 7은 2006년도에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써 방대한 자료 수 용과 다양한 언어기호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조작이 간편하였다. 즉, 접근성·시간절약·구조화·체계화·신축성·편리성·통합성·수정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첫 번째, 프로그램 내에서 연구과제(Project)를 만든 후, txt 파일로 전환한 모든 자료를 저장하였다. 두 번째, 자료를 통하여 발견된 의미를 노드(node)로 범주화하였다. 노드에는 분류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아두는 자유노드(free node)와 범주와 하위범주의 접근을 용이하게 분류하는 트리노드(tree node)가 있다. 세 번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서와 노드, 속성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7) '접근통제자'란 연구참여자 및 연구현장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서, 본 연구의 접근통제자는 각 지역 보호관찰소의 소장·관찰관, 기관의 기관장 및 팀장이 이에 해당된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지역	학 력	횃 수	범 죄 명	가출	종 교	직 업 (경험)
1	남	17	전북	고1중퇴	6회 이상	폭력, 절도 등	○	기독교	무 직(○)
2	남	19	전북	고졸	5	폭력, 사기 등	×	가톨릭	무 직(○)
3	여	15	전북	중3재학	7회 이상	절도, 폭력 등	○	무 교	학 생(○)
4	남	15	전북	중3중퇴	4회 이상	절도, 무면허	○	무 교	직업훈련(○)
5	남	19	전남	고2재학	5	절도, 사기 등	○	무 교	학 생(○)
6	남	19	전남	대1재학	14회 이상	절도, 폭력, 사기 등	○	불 교	학 생(○)
7	남	19	전남	대1재학	5	절도, 폭력, 사문서등	○	가톨릭	학 생(○)
8	남	18	전남	고1중퇴	3	절도, 사기, 강간 등	○	기독교	무 직(○)
9	여	18	광주	중2중퇴	5회 이상	절도, 폭력, 성매매 등	○	불 교	무 직(○)
10	남	15	경기	중3재학	3	절도, 장물 등	○	기독교	학 생(○)
11	남	17	경기	고2재학	5	절도, 교통법 등	○	무 교	학 생(○)
12	남	20	경기	대1휴학	4회(수사1)	절도, 폭력	○	무 교	무 직(○)
13	남	15	서울	고1재학	2	절도	○	기독교	학 생(×)
14	남	15	서울	고1재학	5	절도, 무면허 등	○	기독교	학 생(○)
15	남	19	서울	고2자퇴	4회 이상	절도, 폭력 등	○	기독교	무 직(○)
16	남	19	서울	고졸	2	폭력, 특수강간 등	○	가톨릭	무 직(○)
17	남	20	서울	고졸	4	절도, 무면허	○	무 교	종업원(○)
18	남	16	경상	고1재학	2회 이상	강도, 절도, 무면허 등	×	기독교	학생(○)
19	남	15	경상	중3재학	3	절도, 특수강간	○	기독교	학생(○)
20	여	18	경상	고1재학	3	폭력, 사기, 무면허 등	○	무 교	학생(×)
21	남	20	경상	대2재학	11	절도, 사기, 무면허 등	×	무 교	학생(○)
22	여	18	경상	고3재학	7	절도	○	불 교	무직(○)
23	남	16	경상	고1재학	2	절도, 폭력	×	불 교	학생(×)
24	남	14	경상	중2중퇴	2	폭력, 보호관찰위반	○	불 교	무직(○)
25	남	17	경상	중2복학	3	절도, 폭력, 무면허 등	○	불 교	무직(○)
26	남	19	경상	중2중퇴	18회 이상	절도, 폭력, 무면허 등	○	가톨릭	무직(○)
27	남	17	경상	고2재학	5	절도, 폭력, 무면허 등	○	무 교	학생(○)
28	남	17	대전	중2중퇴	4	절도, 무면허	×	기독교	무직(×)
29	남	17	대전	고2재학	2	폭력	×	무 교	학생(×)

주) 본 자료는 현장일지와 인터뷰자료 및 기록조사를 참고함(2006년 기준임).

1. 성별, 나이, 지역, 학력 : 기록조사·실제 만 나이로 함.
2. 횃수·범죄명 : 횃수는 보호관찰 받은 횃수와 비행행위로 법적 제재조치를 받은 횃수와 선도유예 등을 포함함. 범죄명은 최근 범죄와 기타 다수 저지른 범죄를 포함함.
3. 가출 : ○ - 경험 있음, × - 경험 없음.
4. 직업(경험) : 현재 종사하는 일과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기록함.

2. 분석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 최종결과, 857개의 진술문에서 1,421개의 개념과 59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개념의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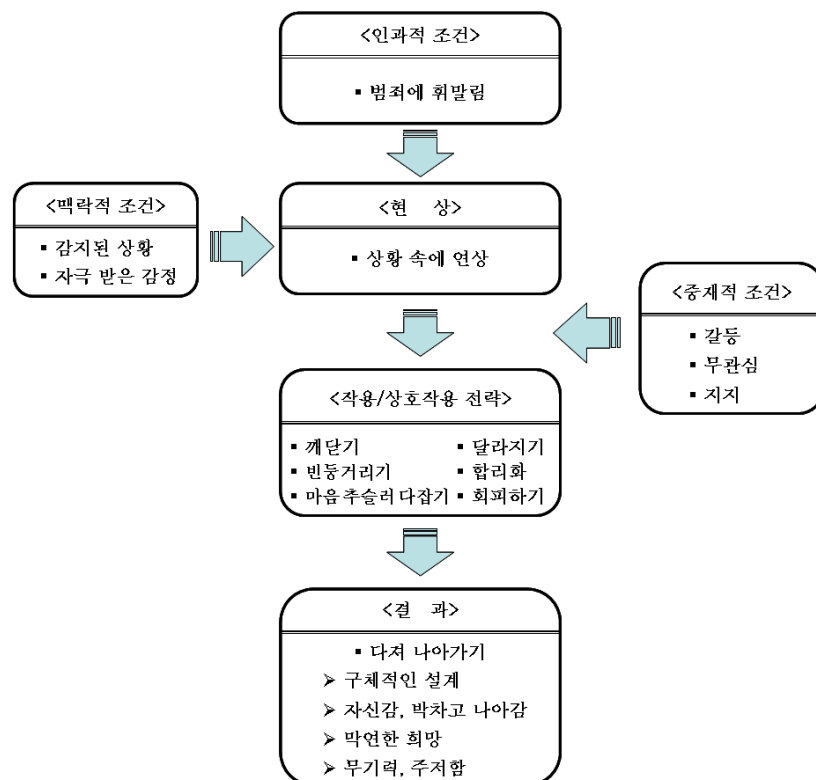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가출해서, 옆에 있다가, 어울리다가	따라함	범죄에 휘말림
•거절을 못함, 유혹 때문.	뿌리치지 못함	
•술, 순간적으로, 핏김에.	우발적으로 함	
•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서, 하자고 함.	주도적으로 함	
•부모, 할머니, 누나가 생각남.	가족이 생각남	상황 속에 연상
•미래가 걱정됨, 부정적으로 보임.	자신이 생각남	
•아무 생각도 안 났음.	아무생각 없음	
•선생님·친구가 생각남, 부정적인 시선.	주변사람이 생각남	
•짜증나고 서러움, 떨림, 도망가고 싶음.	상황인식	감지된 상황
•쓰레기였음, 추해 보임, 한심함.	부정적 자아인식	
•엄마가 그리움. 친구가 보고 싶음.	그리움	자극 받은 감정
•징역이 겁남, 전과·보복·시선이 두려움.	두려움	
•느낌 없음, 머리가 하얘짐, 막막했음.	막연함	
•죽고 싶음, 이렇게 살아 뭐하나.	절망감	
•부모님·피해자에게 죄송함.	죄책감	
•내 행동·모습이 엄청 후회됨, 울었음.	후회함	
•친구와 어울리기 거부함, 학교 부적응.	거북함	갈등
•친구, 친척들과 서먹해짐.	서먹함	
•또 할 놈, 양아치, 문제아 식으로 봄.	못 마땅한 시선	
•지레짐작해서 못 믿음, 심하게 못 믿음.	불신	
•가족, 선생님과 안 좋음.	다툼	깨닫기
•죄짓고는 못 산다, 작은 것이 습관이 됨.	교훈삼기	
•부모님 마음과 태도·법의 무서움.	알게 됨	
•가족의 믿음·친구의 소중함	느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자신이 부족했음, 마음 가짐이 문제임.	인식하기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 가족, 주변에서 관심과 배려를 해줌.	관심	지지
• 진로·경제·학습·적응을 도와줌.	도움	
• 가족, 친척이 돌봐줌. 친구가 보호해줌.	보호	
• 이해, 사랑, 희망·칭찬·격려·의욕·기운을 북돋워줌.	북돋우기	
• 잘해 줌, 자주 연락함, 분위기를 만듦, 직장을 그만 두고 돌봐줌, 원하는 걸 해줌.	애써줌	
• 착하게 살라고 함, 조심하라고 함.	타이르기	
• 속엿 말을 함, 고민·미래를 의논함.	터놓고 얘기하기	무관심
• 내버려 둠, 대화 없음, 주변의 무관심.	무관심한 태도	
• 강요하지 않음, 사랑을 못 느낌, 함께할 시간 적음.	소홀히 대함	
• 반감이 생김, 연락하지 않음, 피해다님.	불편한 관계	달라지기
• 조언을 무시함, 여전히 속을 썩임.	무시하기	
• 잠재력을 키움, 고민을 털어 놓게 됨.	발견하기	
• 많이 반성함, 죄 값을 받고 있음.	반성하기	
• 공범친구·나쁜 마음과 행동 버리기.	벗어나기	
• 깊이 생각함,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짐.	신중하기	
• 보호관찰·친구·생활에 적응하게 됨.	안정된 생활	
• 화를 참음, 싫은 말 안하고 싸움도 안함.	억누르기	
•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 이끌림.	이끌기	
• 중퇴·자퇴·휴학계	중도에 그만두기	
• 인간답게 살자, 하느님께 맹세코 안함.	다짐하기	마음 추슬러 다잡기
• 친구를 안 만남, 휴대폰을 부서버림, 아이디를 변경함.	실천하기	
• 그럴 일 없음, 착실하게 살고 있음.	확신하기	
• 땡굴음, 그냥다님, PC·노래방·술집가기.	하는 일없이 지냄	빈둥거리기
• 싫증남, 짜증남, 보호관찰 통제·경제적으로 힘들, 장남의 집.	불평하기	합리화하기
• 가족·친구·주변·삼재·군대·운동 탓.	핑계대기	
• 급식비로 옷을 삼, 명품을 삼.	겉치레 소비	회피하기
• 고민을 얘기할 상대가 없음.	고립	
• 비참해서, 세상이 미워서, 힘들어서.	자살시도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 다양한 복안, 미래 설계를 실천함.	구체적인 설계	다져나아가기
• 막연한 희망이 있음, 잘 살고 싶음.	막연한 희망	
• 계획 및 성공에 자신 있음.	자신감	
• 모든 게 귀찮음, 알아서 해줌, 미래는 포기했음,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음.	무기력	
• 직접 견학함, 정보제공을 받음.	박차고 나아감	
• 나중에 생각해 봄, 진로 정보 모름.	주저함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패러다임 모형은(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비행청소년 재범 후 일상생활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범죄에 휘말림'으로 드러났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각각 '관여 정도'와 '능동적-수동적'으로 범주화되었다.

(2) 현상

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참여자가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현상은 '상황 속에 연상'으로 '강도'라는 속성과 '강함-약함'이라는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2000).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감지된 상황', '자극 받은 감정'으로 드러났다. '감지된 상황'의 속성은 '정도, 수용방법'으로 차원은 '강함-약함, 긍정적-부정적'이었다. '자극 받은 감정'의 속성은 각각 '정도, 시간'으로 차원은 각각 '심함-약함, 일시적-지속적'으로 범주화되었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필요한 구조상의 조건을 말하며, 특정한 맥락 안에서 취해지는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0).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갈등', '무관심', '지지'였다. '갈등'과 '무관심'의 속성으로는 각각 '정도, 시간'으로 차원은 '심함-약함, 일시적-지속적'이었고, '지지'의 속성은 각각 '정도, 시간'으로 차원은 '많음-적음, 일시적-지속적'으로 범주화되었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에서 현상을 다루고 조절·실행하여 거기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을 말한다(Strauss & Corbin, 2000).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깨닫기’, ‘달라지기’, ‘마음 추슬러 다잡기’, ‘회피하기’, ‘합리화하기’, ‘빈둥거리기’로 구성되었다. 이 범주들의 속성은 각각 ‘정도, 변화’였고, 차원은 각각 ‘많음-적음, 긍정적-부정적’으로 범주화되었다.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다져나아가기’로 드러났다. ‘다져나아가기’의 속성은 각각 ‘태도, 정도’, 차원은 각각 ‘적극적-소극적, 많음-적음’으로 범주화되었다.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1) 핵심범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범주는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고 갈등과 지지 속에 적응하며 다져나아가기”로 요약할 수 있다.

(2) 이야기 윤곽의 전개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관련성을 확인하여 범주를 기술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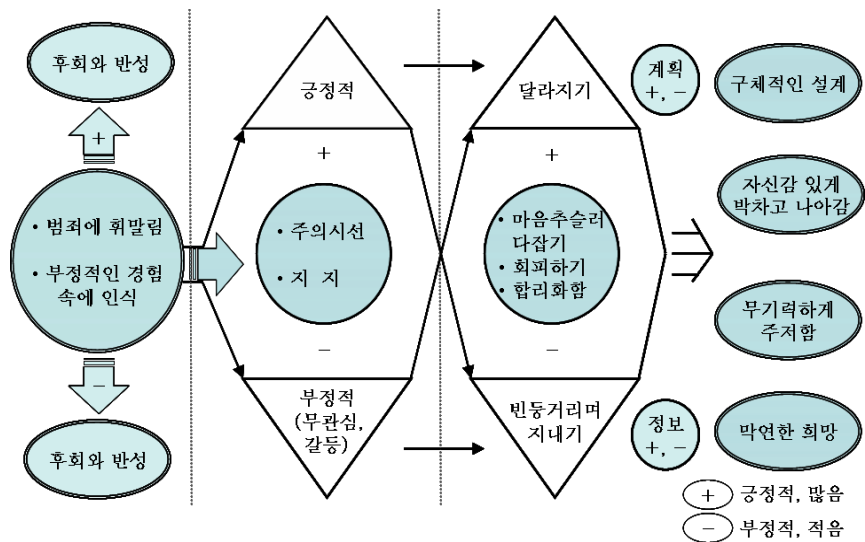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부정적인 경험’이란 비행청소년이 외부 혹은 자신이 봤을 때 좋지 않은 실제 경험을 얘기한 것으로써 인과적 조건인 ‘범죄에 휘말림’에 해당하는 범주와 현상에서의 ‘상황 속에 연상’, 맥락적 조건에서의 ‘감지된 상황’, ‘자극 받은 감정’을 들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범죄 행위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예컨대 비행청소년들은 범죄 행위 이후 경

찰 조사 혹은 범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며 절망하거나 후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비행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갈등 혹은 지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이 경험한 '지지'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갈등'을 경험한 경우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불신이 더 쌓이게 되어 단절관계에 이르기도 하였다. '적응'이란 마음을 가누어 움직이거나 자신의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이나 상황을 잘 수습하며 환경에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다져 나아가기'는 '다지다'에서 오는 '다져'의 의미로 마음이나 뜻을 단단히 가다듬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기'는 앞으로 향해 간다, 혹은 진전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행청소년들과 가족주변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비행청소년의 진실한 반성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재범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존재하는 경우, 가족과 주변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며 그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가면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반면, 가족과 주변의 '갈등과 무관심'이라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즉, '갈등과 무관심'은 비행청소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겉치레적인 과소비형태를 보이거나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개인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은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자동적사고가 자신의 내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조차 없도록 쉽게 포기하고 할 일없이 빈둥거리게 된다고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물질적인 보상체제로 차후 발생할 범죄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태도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배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비행청소년의 의존성향을 습관화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위급상황에서 결정을 힘들어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들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그런 사고와 행동이 향후 자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3)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

‘가설적 정형화’란 근거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과정의 첫 단계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2001).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범주와의 상관관계를 정형화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설정형화 도출

‘가설적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진술한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의 관계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정적인 경험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지지 속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며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다.
- ② 부정적인 경험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지지 속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적응하지만, 막연한 희망으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다.

- ③ 부정적인 경험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지만, 주변의 무관심과 갈등 속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부적응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다.
- ④ 부정적인 경험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주변의 무관심과 갈등 속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부적응하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며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다.
- 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약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주변의 지지 속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며 자신감은 있지만 소극적이다.
- ⑥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약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의 지지 속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적응하지만, 막연한 희망으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다.
- ⑦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약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의 무관심과 갈등 속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부적응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다.
- ⑧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약하며 자신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의 무관심과 갈등 속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생활에 부적응하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며 자신감은 있지만 소극적이다.

(4)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핵심범주에 따른 유형

유형 패러다임	노력형	의존형	방관형	포기형
인과적 조건	범죄에 휘말림 (능/수동적)	범죄에 휘말림 (수동적)	범죄에 휘말림 (능/수동적)	범죄에 휘말림 (능/수동적)
현상	상황 속에 연상 (강함)	상황 속에 연상 (강함)	상황 속에 연상 (약함)	상황 속에 연상 (약함)
맥락적 조건	감지된 상황 (강함/긍정적)	감지된 상황 (강함/긍정적)	감지된 상황 (약함/부정적)	감지된 상황 (약함/부정적)
	자극 받은 감정 (심함/지속적)	자극 받은 감정 (삼약함/일시적)	자극 받은 감정 (삼약함/일시적)	자극 받은 감정 (약함, 일시적)
중재적 조건	갈등, 무관심 (삼약함/일시적)	갈등, 무관심 (삼약함/일시적)	갈등, 무관심 (삼약함/지속적)	갈등, 무관심 (심함/지속적)
	지지(많음/지속적)	지지(많·적음/지속적)	지지(적음/지속적)	지지(적음/지속적)
작용/상호작용 전략	깨닫기(많음)	깨닫기(적음)	깨닫기(적음)	깨닫기(적음)
	달라지기 (긍정적)	달라지기 (긍정적)	달라지기 (부정적)	달라지기 (부정적)
	마음 추슬러 다잡기 (강함/지속적)	마음 추슬러 다잡기 (약함/일시적)	마음 추슬러 다잡기 (강·약함/일시적)	마음 추슬러 다잡기 (강·약함/일시적)
	회피하기(약함)	회피하기(강·약함)	회피하기(강함)	회피하기(강함)
	합리화·빈둥거림 (적음)	합리화·빈둥거림 (많음)	합리화·빈둥거림 (많음)	합리화·빈둥거림 (많음)
결과	다져 나아가기 (적극적/자신감)	다져 나아가기 (소극적/자신감)	다져 나아가기 (소극적, 무기력)	다져 나아가기 (소극적, 무기력)
사례	5, 6, 13, 17	3, 4, 7, 8, 11, 20, 21, 25, 28, 29	1, 9, 10, 22, 23, 24	2, 12, 14, 15, 16, 18, 19, 26, 27

① 노력형

노력형은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문제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도약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한 유형이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세우며, 과거와 미래의 꿈에 대해 조망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② 의존형

의존형은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문제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노력이 소극적인 비실천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은 가족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의존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기력하게 타인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③ 방관형

방관형은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문제행동과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유형이다. 즉, 막연한 기대감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무작정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④ 포기형

포기형은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문제행동이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일관하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산다는 유형이다. 즉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계획까지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유형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포기하려고 하였다.

3. 연구 평가

본 연구에 대한 평가는 Strauss & Corbin(2000)이 제시한 다음 네 가지 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

1)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연구참여자는 연구 주제와 합당한 대상자를 각 지역보호관찰소 및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메모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Nvivo 7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조직화하고 구조화하였다.

2) 발견한 이론

수집된 자료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한 결과에 근거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상호전략, 핵심범주, 재범 후 일상생활 유형에 관한 이론을 발견하였다.

3) 연구과정의 적합성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자료를 직접 전사하면서 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후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하여 본 연구를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기록조사, 메모 등을 추가하였고, 전체과정에서는 연구전문가, 보호관찰 담당자와 청소년 상담자, 범죄예방위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여 진행하였다.

4) 연구에 관한 경험적 근거

연구결과에서 개념을 생성하였고, 개념의 속성을 밝히게 되면서 각 사건은 개념의 속성과 비교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범주가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시간적 변화와 사회적인 통념이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 상황적 조건들을 네 가지 단계로 하여 작용/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며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과정 동안 연구결과가 각 과정을 내포하는지와 사실적인 의의를 갖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V. 논의와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에 관한 중심현상인 ‘상황 속에 연상’의 인과적 조건으로 ‘범죄에 휘말림’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들은 주위의 낙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경우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에서 탈출하고자하는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기존 이론에서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비행하위문화이론에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주장과 근묵자흑(近墨者黑)적인 측면으로 청소년의 범죄행동패턴을 적용하게 된다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인적인 성격특성, 교육·진로 성취도,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청소년의 비행 변인들로 나타났다. 여기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요인이 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기준으로 상위·하위의 구분을 규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기록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볼 때 30% 이상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편이 아니었고, 최근 들어 급변하는 정보화와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범죄 역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문화 등과는 상관없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비행청소년은 재범 후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 ‘무관심’은 소외감을 형성하게 된다. 예컨대, 재범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과 ‘무관심’은 자신들에 대한 불신감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반면, ‘지지’는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재정리하면서 가정·학교·사회에 갈등을 감소시키고 건전하게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윤희유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갈등’, ‘무관심’, ‘지지’는 비행청소년이 재범 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개입하는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다져 나아가기’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재범 후 가정·학교·지역기관에 적응하면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직 전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꼭 해낼 수 있어요.” 이러한 비행청소년에게 재범 후, 미래의 기대 혹은 희망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례로, “아직 갈 길을 못 정했어요..... 엄마가..... 유학도 생각해 보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취업..... 그냥 놀면서 지내죠!”, “집에서 알아서 다 해주시죠.....”라고 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의존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행청소년의 주변

에서는 그들의 의사(意思)를 존중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비행청소년에게 많은 정보와 대화를 통하여 주체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층면접은 기존 연구접근 방법들을 보완하였고, 근거이론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 연구 영역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과 Nvivo 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조직화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하여 비행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임상적 개입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넷째,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입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들은 기관을 통하여 소개받았기 때문에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학력 수준이 낮거나 지능이 평균이하인 경우가 있어 유형을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이들의 일상생활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꾸준한 검증과 논의를 거친 후, 일상생활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개입방향과 제도적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 외(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민동(2002).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 일반청소년 집단과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곤(2003).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지·신경림 역(2000).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주희(2006).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이 시설보호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이순래(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행석(2005). 청소년기 최초범죄와 재범발생의 상관관계 연구 :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김현실(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2호, pp. 279-291.
- 노컷뉴스 2007. 3. 8일자 기사 : 재범률 33%...딜레마에 빠진 청소년 범죄.
- 민원홍(2006).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뉴스 2007. 4. 24일자 기사 : 촉법소년 연령 10세로 낮춘다. 소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_____ 2007. 6. 15일자 기사 :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10세~14세로 확대. 소년인권보호와 비행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원법 개정.
- _____ 2007. 7. 25일자 기사 : 법무부 보호국, 범죄예방정책과 신설 등 조직개편.
- 법무연수원(2006). 범죄백서 2006. 경기도.
- 오창규(2007). 비행청소년의 가족의사소통, 가족기능, 가족갈등과 재비행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제필(2005). 청소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2004).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교정연구, 제24호, pp. 39-68.
- _____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pp. 335-367.
- 이미숙·고성혜(2003). 비행청소년과 가정폭력.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이상현(2005).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성철(2004).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미(2005). 청소년의 재비행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의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전숙영(2003). 비행소년의 생활세계. 서울: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최옥채(2003).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최옥채·이정미(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제33호, pp. 143-167.
- 최영인·염건령(2005). 범죄생물학이론과 범죄심리학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 최인섭·진수명(200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ans Eysenck(1977). *Personality and Crim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Hans Toch(1986). *Psycholog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III. : Wareland Press, Inc.).
- Robert K. Merton(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Glencoe, III. : Free Press). pp. 188.
- Strauss, A. &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신경림 역(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_____.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역(2000). 근거이론의 이해 - 간호학의 질적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신경림 역(1996).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grounded theory*, 2nd edition, Sage Publication.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the Daily Lives of Juvenile Delinquents following a Second Offense

Joo, Young-Shin* · Lee, Min-Ch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the juvenile delinquent's daily life after a second offense. This study utiliz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based on Strauss and Corbin (1990). This research exercise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29 juvenile delinquent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produced 1,421 concepts, 59 subcategories, and 14 categories from 857 statements. The analysis of the constant present relationships between categories, centered on the core category, were found to be limited to four types : 'Endeavoring', 'Dependent', 'Unconcerned', and 'Abandon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make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field as well as filling existing gaps in our existing knowledge of subjects which are, by their very nature, difficult to gain access to. For the application of welfare system, the necessity of deep understanding of it deserves special emphasis and more detailed advice and further studies are recommended.

Key Words : Grounded Theory, Juvenile delinquent, Daily life, Repeated Offense, Qualitative Study.

투고일 : 9월 12일, 심사일 : 1월 3일, 심사완료일 : 1월 15일

* Chosun University, 1st author

** Chosun University, correspondent author

